



새 교육정책과 공교육

마병식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정책의 대부분은 국민이 교육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이 주는 긴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갖는 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달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교육 복지와 불편의 해소 측면에서 진행되는 온종일 돌봄, 무상교육 강화, 입학전형 간소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안전 환경 조성 등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즉,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공교육의 지원 강화와 교육 복지로서의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그리고 체육교육의 활성화는 교육 경쟁에서 오는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행복한 교육으로 교육 현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을 기존 교육 정책의 틀을 탈피한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대부분의 정책이 기존 교육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국민이 현재 느끼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단기 처방들이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땀질식 처방이라는 것은 새 정부의 기본 교육 정책이 우리 교육에 특별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그래서 교육 슬로건인 행복한 교육과 창의 인재 양성도 피상적인 구호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의 가장 큰 아쉬움은 준비된 교육 철학에서 우러나오는 정책과 국민의 공감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국민교육의 공감대가 약하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육 정책이 현실 여론과 드러난 문제들을 해소하는 단기 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교육 철학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거시적인 교육 정책의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즉, 안정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숙성된 교육 정책 추진이 어렵다.

행복한 교육,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국민적인 공감과 교육 정서의 건강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제는 우리 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가정과 사회가 조장하는 불편한 학교

우리 국민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단순한 교육 체제가 불편하더라도 대부분 잘 순응한다. 나아가 국민들은 학교 외 사교육을 통해서도 국민 의무교육에 더하여 도가 지나치도록 충성을 다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교육열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사회로 나아가 과도하게 불필요한 교육 경쟁사회를 부추기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이 교육 경쟁 레이스를 펼치다보니 모든 국민들은 교육 앞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불편한 학교 사회가 되어 버렸다.

실제 우리 국민들이 갖는 교육에 대한 상식적인 철학은 입신이다. 그래서 경쟁 교육, 입시 중심의 교육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학부모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정책들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이러한 교육 풍토를 그대로 둔 채 일시적인 교육 불편을 해결하거나 긴장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에서 주로 추진되고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교육 개혁과 교육 정책들이 실시되었지만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킨 측면이 많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이 새로운 사교육의 수요를 만들고, 경쟁을 완화시키는 입시정책이 복잡한 입시 전형을 만들며, 수능의 비중을 줄이는 교과 평가 중심 정책이 더 많은 영역의 성취 실적이 필요한 과도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안겨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주려는 정책이 시도되었음에도 대부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리의 교육 체제를 지탱하는 교육철학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교육 철학으로 공감을 만들어가는 정책적인 노력의 한계 때문이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 중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인성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조차도 이전의 정부와 다른 큰 틀에서의 새로운 철학적 고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전의 정부에서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생각한다면 별로 달라질 것이나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우리 교육 현장은 가정과 사회가 교육 경쟁을 조장하는 불편한 학교이다.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상적인 교육 정책으로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즉, 가정이 건강한 교육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조장하고 사회에서 합리적인 교육 풍토가 가꾸어 지도록 지원하는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

우리 교육은 지나치게 학교 중심적인 교육의 틀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의미와 학교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만큼 학교와 학교 중심에 교육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흔히 교육의 주체를 부모, 학생, 교사라고 할 때, 다수인 부모와 학생이 가정에 소속되어있고,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중심적인 교육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강한 생각이 학교를 넘어서는 교육정책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교육은 가정을 교육의 객체로 보고 학교교육의 지원 조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부모가 교육에 대해 판단하고 선택하기보다는 학교 교육을 돕고 지원하는 객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편협한 교육 구조는 가정이 감당해야 할 교육의 고유기능을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결국 가정교육의 기능 붕괴는 현장 학교에서의 다양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아동들은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양육과 관심의 욕구를 학교에서 무질서한 일탈과 불만으로 쏟아내고 있다.

성경에서는 교육의 책임이 가정의 부모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에서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의 센터로서 학령기의 아동을 부모로부터 양육 책임의 일정 부분을 위탁받아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다.

가정과 학교는 동역 관계에 있다. 그래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가정의 교육적인 역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좋은 학교는 좋은 가정교육과 사회 구성원의 성숙한 교육 의식의 바탕 위에 있다.

건강한 학교교육은 든든한 가정교육의 바탕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좋은 교육 정책은 가정의 교육을 세우는데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건강한 가정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좋은 학교는 건강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같이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은 교육 본질적인 영역에서의 고민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철학적인 모색을 필요로 한다.

새 교육정책으로는 학교교육의 변화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우리의 학교교육은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기독교대안학교가 우리 공교육의 건강한 소통과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우리 공교육의 긍정적인 변화와 시대를 이어가는 든든한 교육 사회로의 개혁을 위해 우리 가정과 교회로부터의 교육혁신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우리 교육의 건강한 기반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 철학의 원리에 충실한 교육 정책을 기대해본다.



마병식 현재 기독교대한학교연맹 사무총장이자 서울인수초등학교 교사, 기독교홀스쿨협회 부대표이다.

